

# 『兵法家傳書』에 있어서 ‘평상심’과 ‘방심’

— 마음의 억제와 해방 —

加 藤 純 一

## 0. 일러 요약

本稿では、柳生宗矩著『兵法家伝書』の「殺人刀 上巻」に「右之両条は兵法の病気をさると云心持にあて用る事也」とコメントが付されている「僧問古徳如何是道。古徳答曰平常心是道」と「木人如對花鳥」の2つの話頭、並びにその上位概念に位置付けられる「中峯和尚云、具放心心」について論述する。先の2つの話頭には「病気をさると云心持にあて用る」とあることから、「着した心」を払拭し常なる心でいることの重要性が説かれたものと言え、後者は武芸者が求道した究極の心のあり方を表したものとして把握できる。そこで、本稿では宗矩が説く「具放心心（放心心を具せよ）」に至るための心の在り方を段階的に考察し、宗矩が把握した兵法者の心のあり方について明確にしようとした。特に、「具放心心」の読解においては、柳生宗矩が「法の師」と仰いだ沢庵の『不動智神妙録』に展開する「求其放心」「心要放」「覓放心」といった用語との比較を通して、段階的に展開する兵法者の心の有り様を明らかにした。生命の危機を常に背負っていた武士だからこそ、実戦より導き出された己れの心法論が展開でき、それをまた技法と融合させることにより更なる深化をはかることができたと考えられる。

本稿が対象とした宗矩の心身（身心）観は、この「殺人刀 上巻」を総括する役割を果たしていると同時に、後段の「活人剣 下巻」や、それに併設されている「無刀之巻」への布石とも理解できる。つまり、『兵法家伝書』における柳生宗矩の心身（身心）観を論じる上で、非常に重要な役割を担う個所であり、その意味においても本稿における心の分析は重要な意味を持つと考える。

本稿で用いたテキストは、天理大学図書館所蔵の『兵法家伝書』が掲載されている加藤純一『兵法家伝書に学ぶ』（日本武道館）である。同類の書では渡辺一郎校注『兵法家伝書』（岩波文庫）があるが、その凡例にもあるように、手軽で読みやすく修正がなされたものとして加筆されている。また、同氏には日本思想大系『近世芸道論』（岩波書店）所収『兵法家伝書』もあるが、こちらは「江戸柳生家本（東京都柳生宗久氏蔵）をできるだけもとの姿を残すように翻刻した」ものであり、現在、原本と整合することのできない資料となっている。以上により、本稿においては小城鍋島家本（天理図書館蔵）を翻刻、それを掲載した『兵法家伝書に学ぶ』を用いることにした。なお、本稿で引用した個所は筆者の判断により忠実にハングルに翻訳した。また、その個所が明らかになるよう引用頁を明記した。本来であれば引用した原文を注に記載すべきであるが、今回は頁数の関係でそれを省略したことを付言しておく。

## 1. 머리말

신심(身心)인가 혹은 심신(心身)인가. 마음과 신체와를 표기하여 나타낼 때 과연 어떤 것이 바른 순서일까. 서구에서는 마음과 신체를 이원적으로 파악하는 사고에 기초하여 당연히 ‘심신’으로 표기한다. 데카르트(Descartes)의 유명한 말을 인용할 것까지도 없이 마음의 존재가 신체를 규정한다고 하는 ‘심신관(心身觀)’이다. 이것에 대하여 일본의 무도에서는 신체를 제일의적으로 파악하여, 신체에서 마음을 유도시킨다고 하는 ‘신심관’을 나타낸다. 이른바 ‘신심일여(心身一如)’의 세계관으로, 이 신체관은 신체를 수련하는 것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이어진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러한 ‘심신일여’의 일원적인 사고를 과연 서구의 것에 대한 동양적인 사고로 대표하여 평가될 수 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동아시아의 중국과 한국의 무도서(武道書)에서는 일원론적인 신체관의 사고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 도쿠가와(德川)가 지배한 일본과 문관, 무관을 구분하는 제도를 가졌던 중국과 한국의 정치적인 체제의 차이도 들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동양적인 신체관(身體觀)을 하나로 묶는 것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음이 먼저인지 신체가 먼저인지의 논의는 일단 접어주고, 신심을 불가분의 것으로 파악하는 신체관 내지 신심관이 항상 생과 사와의 경계를 의식하며 살았던 당시 무사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때로는 자기 몸을 현혹할지도 모르는 마음을 몸의 수행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선종(禪宗)의 수험자(修驗者)\*1 처럼 신체를 단련하는 것으로 마음의 ‘흔들림’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관점을 염두에 두고 무예자의 신체와 마음과의 관계를 밝히는 방법으로서 무도서를 분석하여, 무도의 몸과 마음의 관계 즉 신심관을 해명하고자 한다. 야규무네노리(柳生宗矩, 1571-1646)가 근세 초기에 쓴 「병법가전서(兵法家傳書)」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했다. 이 「병법가전서」는 「진리교(進履橋)」 「살인도 상권(殺人刀 上卷)」 「활인검 하권(活人劍 下卷)」의 삼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특히 이 「살인도 상권」에서 전개되는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목인여대화조(木人如對花鳥)’ ‘구방심심(具放心心)’의 3항목을 분석했다. 그 중 먼저 2항목에는 “병법의 병을 없애는 마음”\*2 이라는 주석이 붙어있어 ‘평상심’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이다. 뒤의 마지막 항목은 무네노리가 생각하는 ‘궁극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서, 앞의 2항목에 이어서 전개된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평상심’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으로부터 전개되는 ‘구방심심(具放心心)’에 이르기 위한 마음가짐을 단계적으로 살펴, 무네노리가 파악하고 있는 병법자의 바람직한 마음가짐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와 ‘목인여대화조(木人如對花鳥)’를 이해하여 “병법의 병기를 없애는 마음”을 명백히 하고, 다음으로 이것에 기초하여 무네노리가 구도(求道)하였던 지극의 마음상태를 ‘구방심심(具放心心)’의 이해로 도출한다. 그리고 이러한 무네노리의 ‘심법론(心法論)’을 통하여 일본무도의 신심관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인용한 야규무네노리 「병법가전서(兵法家傳書)」는 줄지 「兵法家傳書に學ぶ」(日本武道館, 2003)의 자료편(資料編)에 게재한 천리대학(天理大學)장서의 「병법가전서(兵法家傳書)」를 사용하였다. 인용한 원문(일어)은 한글로 번역하여 제시하였고, 면수를 밝혀두었다.

## 2. 평상심(平常心)

야규무네노리(柳生宗矩)는 「살인도 상권(殺人刀 上卷)」을 끝맺는 이 항목에서 중국의 선승인 고덕(古德)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평상심이야말로 도(道)라고 한다.

### 2-1. 여느 때의 마음을 갖는 것

僧問古德로 如何是道이고 古德答曰로 平常心是道이다.(20면)

고덕(古德)은 당(唐)나라시대의 유명한 선승인 마조도일(馬祖道一)이다. “도란 어떤 것인가”하는 질문에 대해 “평상심(平常心)이 도(道)이다”라고 대답한다. 이것에 대하여 무네노리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이 말은 여러 길(道)로 통하는 도리(道理)이다. 도(道)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느 때의 마음이 도(道)이며 실로 지극한 것이다. 마음의 병이 다 없어지고 평상시의 마음이 되면 병과 같이 있어도 병에 안 걸리는 상황이다.(20면)

무네노리는 승려 고덕(古德)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각각의 길(道)에 통할 수 있는 도리야말로 평상심이라고 하며, 평상심은 ‘특별한 마음’이 아니라 ‘여느 때의 마음’이라고 설명한다. 여느 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병을 극복한 후에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이고, 이 여느 때의 마음으로 있으면 병을 유발시키는 상황에 빠져도 결코 병에 안 걸린다고 한다.

무네노리가 파악하는 이 ‘여느 때의 마음’ 상태는 이전에 설명한 “닭지 않은 막 파낸 박옥(璞玉)에는 먼지가 묻어 있다. 그러나 잘 닭여진 옥은 혹 진흙 속에 넣더라도 더러워지지 않는다.”(20면)는 말과 통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잘 닭여진 옥’은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오히려 여느 때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강조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무네노리는 이 무심(無心)과 같이 여느 때의 마음으로 있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활을 쏘 때 활을 쏜다는 생각이 있으면 화살선이 움직이고 일정하지 않게 된다. 칼을 쓸 때 칼을 쓴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칼선(劍先)이 일정하지 않게 된다. 글을 쓸 때 글을 쓴다는 생각이 있으면 붓끝이 일정하지 않게 된다. 거문고를 연주할 때 연주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가락이 흩어진다. (20면)

무엇을 할 때 그것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생겨 그 생각을 떨치지 않은 채로 행위를 하면, 자기가 뜻하고자 하는 결과를 내지 못한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느 때의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여느 때의 마음으로 수많은 일을 할 때, 수많은 일이 쉽게, 간단히 되는 것이다. 도라고 하는 것도 이것을 도라고 가슴에 새기면, 도가 아닌 것이다. 가슴에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도자(道者)이다. (21면)

숨김없는 마음상태로 만사에 임하면 전부가 쉽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라고 하면 일단 가슴속에 간직하고자 하지만, 이것은 도(道)가 아닌 것이 된다. 가슴속에 아무 것도 간직하지 않은 사람이 실은 도자라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여느 때의 마음’이 “가슴속에 아무 것도 담지 않은 마음”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할 때, 그것을 “하자”라고 말한다. ‘활을 쏘자’, ‘칼을 쓰자’등의 마음이 아니라 활을 들지 않을 때의 마음, 칼을 쓰지 않을 때의 마음으로 활을 쏘고, 칼을 쓰라고 한다. 무네노리는 만사에 임할 때 가슴속에 아무 것도 없는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를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도자라고 한다.

## 2 - 2. 명경지수(明鏡止水)의 경지

무네노리는 가슴속에 담은 것이 없는 사람이 즉 도자라고 한다.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불식한 후에 나타나는 여느 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일때, 무네노리는 ‘도자의 가슴속’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거울은 항상 투명하며 어떤 형체도 없기 때문에, (거울에)비춰지는 모양이 어떤 것이라도 그대로 비춘다. 도자의 가슴속은 거울과 같이 아무것도 없고 명백하기에, 무심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다. (이 가슴속의 상태가) 평상심이다. (21면)

거울은 항상 투명하고 그 자체가 아무런 형체도 없기 때문에 거울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비춰낼 수 있다. 도자(道者)의 가슴속도 거울과 같아서 사실 그대로를 비춰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심’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런 마음의 상태로 있으면 모든 것을 완벽히 해낼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평상심이며, 또 이런 상태가 ‘명경지수(明鏡止水)의 경지’라는 것이다. 명경지수의 경지로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된다. 이 평상심을 가지면서 만사에 임하는 사람들을 명인(名人)이라고 한다. (21면)

언제나 평상심을 가지고 평상심으로 있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을 명인이라고 한다.

## 2 - 3. 동전(動轉)하지 않는 마음 -목인(木人)이 화조(花鳥)를 보는 것-

이상을 정리해 보자면, 평상심이란 여느 때의 마음이며 무심이기도 하다. 이것은 가슴속이 거울과 같이 맑은 모습, 한점의 흐림도 없는 맑은 상태이다. 무네노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목인(木人)이 화조(花鳥)를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한다.

나무로 만든 인형이 화조(花鳥)에 맞서는 것이다. 눈은 화조를 보고 있지만, 마음은(화조를 향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목인(木人)은 원래 마음이 없으므로 당연히 움직임도 없을 것이다. (21-22면)

목인(나무로 깎아 만든 사람)의 눈은 꽃이나 새를 보고 있지만, 그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목인에게서는 처음부터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을 보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움직이거나 하지

않는다. 목인이 화조(花鳥)를 대하는 것과 같은 부동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지는 「장자(莊子)」 제19편 「달생(達生)」에 보이는 목계(木鷄)와 비슷하다.

紀渚子是爲王養鬪鷄라. 十日而問 鷄已乎아. 曰未也이다. 方虛憊而恃氣오이다. 十日又問하니 曰未也이다. 猶應響景이어이다. 十日又問하니 曰未也이다. 猶疾視而盛氣이오이다. 十日又問하니 曰幾矣이다. 鷄雖有鳴者나 已無變矣오이다. 望之似木鷄矣요 其德全矣니 異鷄는 無敢應者요 反走矣오이다. \*3

여기에서는 수양을 쌓아 덕을 완수한 상태를 목계(木鷄: 나무로 깎아 만든 닭)에 비유하고 있는데, 바로 목인과 목계는 같은 심경이라고 한다.

그런데 무네노리는 목인 내지 목계와 사람(병법자)은 결국은 다른 것이라고 언명한다.

사람의 마음은 대나무와 같을 수 없다. 꽃을 볼 때 꽃을 보고자는 마음이 새롭게 생겨 (결국 꽃을 바르게)보지 못한다. 오로지 여느 때의 마음으로, 무심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22면)

사람들은 목인이나 목계와 달라 사물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의식, 무의식과 상관없이 눈으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언가를 볼 때, 그 순간 보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평상시의 자연스러운 마음, 무심으로 있는 그대로를 보아야한다는 것이다.

마음이 아무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무심으로 대상을 본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 판단하는 습성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네노리는 이것을 부정한다. 눈앞에 있는 현상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무심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바로 목인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달성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기 앞에 있는 사물에 사로잡히지 않고 도자(道者)와 같이 여느 때의 마음으로 있을 필요성에 관해 무네노리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2-4. 마음이 변화하면 몸도 변화한다는 것

여느 때의 마음을 바꿔, 새로운 마음이 생기면 형(形)도 새로워지기에 내외 양쪽이 움직인다. 만일 움직여 가는(動轉) 마음이라면 (결과적으로)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22면)

여느 때의 마음이 바뀌어 새로운 마음이 생기면, 형(形)도 새로워지고 내외(마음과 몸)가 같이 움직여 부동의 상태가 되지 않는다. 만일 동전(만일 움직여 가는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면 무슨 일도 잘 될 수가 없다고 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여느 때의 마음이 변하여 새로운 마음이 생기면, 형(形) 즉 몸도 변해버린다고 하는 점이다. 마음이 변하면 몸도 같이 변한다고 한다. 한순간이라도 그 순간 마음이 어느 것에 대해 집착해버리면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변화한다. 예를 들어 누가 감기에 걸렸냐고 하자. 이에 감기에 걸린 것 같다고 감기를 의식한 순간에 몸이 나른해지는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무의

식으로 있을 때는 그다지 변화를 느끼지 않지만, 무엇인가에 의해 의식한 순간에 몸에 변화가 생긴다. 바로 마음가짐에 따라 몸에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 좋은 예이다.

병법에 있어서는 마음의 동요나 집착에 의해 몸에 나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치명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칼과 칼로 싸우는 경우에 몸이 경직되어 칼을 잡은 손이 굳어져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무네노리가 마음가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쏟은 이유는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으로 깊이 터득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정보를 눈으로 얻지만, 눈은 속아 넘어가기 쉽고 마음을 유혹하는 계기도 된다. 눈을 중심으로 정보를 정보로 얻으면서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느 때의 마음으로 대처하는 것의 중요성을 무네노리는 실례를 들어 설명한다. 지금까지 육성해온 자신의 몸이 한순간의 마음의 움직임에 의해서 변화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 3. 구방심심(具放心心)의 세계

「살인도 상권(殺人刀 上卷)」은 마지막 항목으로 중 '봉스님이 이르기를 방심심을 갖추라(中峯和尚云, 具放心心)'를 다루고 있다. 이 항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네노리가 마음의 스승으로 존숭하였던 다쿠안(澤庵)이 집필한 「부동지신묘록(不動智神妙錄; 후도치신묘우로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다쿠안에 관해서 소개한 후, 그의 「부동지신묘록」과 무네노리의 「병법가전서(兵法家傳書)」를 비교, 고찰하여 다쿠안이 말하는 심법론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것으로부터 실전가인 무네노리가 전개한 '마음의 세계'를 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3-1. 다쿠안(澤庵)에 관하여

다쿠안은 1573(天正1)년 타지마(但馬)에서 태어나, 1645(正保2)년 73세로 그 생애를 마쳤다. 1601년(慶長6)년, 문서(文西)스님에게서 사사 받고 수행, 이어서 일동소적(一凍紹滴)스님 아래에서 선도(禪道)를 배우고 1604(慶長9)년 일동소적스님으로부터 인가(印可)를 받아 다쿠안의 호(號)를 받았다. 다쿠안은 스스로 무예(武藝)를 좋아하였고 또 뛰어났었다. 유형으로 갓났던 대와(出羽)의 땅에서 만난 가미노야마(上之山)성주인 도키야마시로노카미여리유키(土岐山城守頼行)는 다쿠안을 스승으로 존경하여, 후일 병법과 선(禪)에 깨달음은 얻어 자득기류창술(自得記流槍術)을 개안(開眼)하였다. 또 그의 신하인 마즈모토조몬노카미사다요시(松本長門守定好)도 다쿠안에 참선하여 창(槍)의 오의(奧義)를 깨우치고 일지류(一旨流)를 창시하였다.

1632(寬永9)년 7월, 제2대장군인 도쿠가와히데타다(德川秀忠)의 타계에 의해 사면되었고, 텐카이소우조(天海僧正)와 야규무네노리 등의 진력에 의해 다쿠안은 에도(江戸)로 돌아오게 되었고, 1635(寬永12)년 무네노리의 집에 체재하였다.

일본 에도(江戸)시대는 관학(官學)인 주자학을 기축으로 배불론(排佛論)이 전개되었다.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나 그 제자 하야시라잔(林羅山)도 원래는 선승(禪僧)이었지만, 후에 주자학도로 전향하였다. 그리고 다쿠안보다 후 시대에 활약한 야마자키안사이(山崎闇齋)도 같은 길을 걸었다.

주자학의 이일분수(理一分殊)의 전개는 태극(太極)으로서의 이(理)의 존재를 명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재자(主宰者)인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을 정점으로 하는 막번체제(幕藩體制)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것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무로마찌(室町)시대까지의 불교주류에 대하여, 에도 시대의 주자학은 이(理)에 기초하여 봉건체제를 내부에서 떠받치는 역할을 행하였으며, 이 의미에서 환속(還俗)은 도쿠가와(德川)막부에서의 귀의(歸依)로 이해되었다.

다쿠안은 1621(元和7)년에 「이기차별론(理氣差別論; 리키사베즈론)」을 썼다고 전해지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관학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기차별론」은 주희(朱熹)의 「이기가원론」만큼 이원론적이지는 않다고 한다.\*4 이것은 다쿠안 자신이 신유불(神儒佛)의 삼교일치(三教一致)를 지향하는 경향이었고, 우주론적인 시점에서 이(理)보다도, “기는 스스로 음양을 이룬다. 규(規)는 이(理)에 있다”\*5 고 하여 기의 내재적인 원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파악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6

그리고 다쿠안의 저작으로서의 「부동지신묘록」 「태아기(太阿記; 타이아기)」는 심학(心學)이라기보다는 심법론(心法論)의 특징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심법론으로 시종하지 않고, 실천으로서의 기법 수행을 촉진하여 심법과 기법이 양 바퀴와 같이 양립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른바 사리일치(事理一致)의 경지이다. 「부동지신묘록」 중의 ‘부동지의 마음’, 「안심법문(安心法門; 안신호우문)」 중의 ‘마음 그대로의 무심’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심, 기(마음과 기)를 갈고 닦은 후에 유지하는 자기의 경지를 표현한 말로 파악할 수 있다.

다쿠안이 쓴 사상서의 특징을 총괄해 보자면, 선종(禪宗)과 노장(老莊)을 비롯한 중국사상가의 영향, 그 중에서도 특히 신유학(新儒學)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 다른 불교학자와는 달리 선어를 다용하거나 난해한 강독을 하지 않은 점도 특필할 수 있다.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이 실천윤리라고 할 수 있는 구도(求道)의 정신이고, 주자학의 이기론과 선종의 심신관을 연결시키면서도 특히 형이하(形而下)의 마음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는, 즉 ‘심즉리’라는 사리일치의 탐구라고 할 수 있다.

### 3-1-1. 경(敬)의 마음가짐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무심(無心)이 요구된다. 무심이란 마음이 없다는 무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상관하는 바 없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며 어떤 것에도 동요되지 않는 바로 ‘여느 때 마음’을 뜻한다. 그런데 이 ‘여느 때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수양이 필요하다. 무네노리는 이런 경지를 ‘일심불란(一心不亂)’ ‘일심경례(一心敬禮)’라고 표현한다.

유서(儒書)를 읽는 사람은 경(敬)의 글자에 구속되어 이를 향상(向上)이라고 생각하여 일생을 경(敬)의 글자로 보내니, 마음을 끈으로 목을 매어 놓은 고양이와 같이 생각한다. 불법(佛法)에서도 경(敬)의 글자가 없는 것이 아니다. 경문에 ‘일심불란(一心不亂)’이라고 있는데, 유서(儒書)를 읽어본 사람은 이것이 곧 경(敬)의 뜻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경백부불자(敬白夫佛者)라고 하는 곳도 이 있다. 또 경례(敬禮)라고 하여 불상에 대하여 일심으로 경례한다(一心敬禮)고 한다. 모두 경례의(경의 글자도 유학의 경의) 뜻과 다르지 않다. (23면)

유자가 경의 글자에 집착하는 것과 불법에서 일심불란으로 경독하는 것은 ‘끈으로 목을 매어 놓

은 고양이'와 같이 마음에 끈을 매어 구속하는 것과 다름없다. '경백부불자(敬白夫佛者)'와의 불상에 대해 일심경례하는 것도 유학에서 말하는 경(敬)의 뜻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

한편 다쿠안도 「부동지신묘록」에서 유학의 경(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경(敬)의 글자를 '주일무적(主一無適)'이라고 해석하니, 마음을 한 곳에 정하여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7

「사서집주(四書集註)」에는 “경(敬)은 주일무적의 뜻”이라고 해석한다.\*8 이것은 “마음을 한 곳에 정하여 다른 곳으로 마음을 보내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다. 또 불법에서도 경(敬)을 말한다고 하여, 이것을 다쿠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불법에서도 경(敬)자를 말한다. 경백(敬白)의 종(鐘)이라 하여 종을 3번 울리고 합장하여 공손히 사귄다. 먼저 부처에 대한 이 경백(敬白)의 마음은 주일무적(主一無適), 일심불란(一心不亂)과 같은 의미이다. 그러나 불법에서의 경(敬)자는 마음의 지극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행<sup>3</sup>훈련의 방법이다.\*9

불법의 경백(敬白)도 유학에서 의도하는 주일무적 내지 일심불란과 같은 의의가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불법에 있어서는 경백(敬白)이라는 글자가 의미하듯이 여기에는 경(敬)의 글자로서 마음을 흐트러트리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것은 교리를 유도하기 위한 내지 수행이나 훈련방법의 방편이지, 경(敬) 자체가 궁극적인 경지라는 것은 아니다.

경(敬)자의 뜻은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멈추어 보내지 않는 것, (마음이)가버리면 흐트러져버린다고 생각하여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마음을 잡아두는 경지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 순간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시적인 단계로서, 항상 이렇게 해서는 마음은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10

여기에서 다쿠안은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경(敬)자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당장의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는 하지만, 결국은 마음을 구속해버리는 부자유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무네노리가 전개하는 경(敬)의 해석도 다쿠안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 다쿠안이 “불법에서의 경(敬)자는 마음의 지극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고 하여 유학적인 경(敬)의 해석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에 대하여, 무네노리는 더 나아가 “마음을 끈으로 목을 매어 놓은 고양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고 하여 유학에서 제시하는 수행의 방법도 부정하고 있다. 무네노리는 경(敬)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을 “모든 마음의 흐트러짐을 수습하기 위한 방편”(23면)이라고 하며, “잘 수습하는 마음은 수습하기 위한 방편을 쓸 필요가 없다”(23면)고 한다. 그리고 “경(敬)은 본심의 덕(德)이다. 그렇지만 행위를 하는 동안에만 쓰는 마음이다”고 하여, 다쿠안과 같이 어디까지나 경(敬)은 수행이나 훈련을 하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경(敬)을 떠나서 수습하는 마음, 흠먼지 속에 있더라도 더러워지지 않는 마음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유불(儒佛)에 기초한 경(敬)의 실천을 말한 것으로 일심불란, 일심경례, 주일무적 등



은 마음을 수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 그 자체로는 궁극적인 것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무네노리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 중봉(中峯) 스님이 말한 ‘구방심심(具放心心)’을 인용하여 마음을 해방하는 2가지 단계에 대해 언급한다. 먼저 다쿠안이 설명하는 마음의 세계를 검토한 후, 다음으로 무네노리의 ‘구방심심(具放心心)’을 살피고자 한다. 여기에서의 ‘구방심심(具放心心)’은 “마음을 놓아버리는 마음을 갖추라”는 뜻이다.

### 3-1-2. 다쿠안의 ‘심요방(心要放)’

다쿠안이 쓴 「부동지신요록」 속에는 「병법가전서」의 ‘구방심심(具放心心)’과 비슷한 뜻의 ‘심요방(心要放)’과 ‘먹방심(覓放心)’이라는 용어가 보이는데, 이것은 병법가의 마음가짐을 설명한 것이다.

소강절(邵康節)이라고 하는 분이 ‘심요방(心要放)’을 말하였다. (중략) 이 뜻은 마음을 구속하고 있으면 지쳐버리기 때문에 고양이와 같이 몸이 움직이도록 하여 사물에 마음이 머물지 않고 물들지 않도록, 마음을 잘 쓰고 구속하지 않고 해방해야 한다는 뜻이다. \*11

북송(北宋)의 유학자인 소강절(邵康節)이 ‘심요방(心要放)’을 논하였는데, 이것은 “마음(心)을 해방(解放)시키는 것이 필요(必要)하다”는 의미이다. 잡혀있는 고양이와 같이 마음이 구속되면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마음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심요방(心要放)’이란 자기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사물에 물들지 않고 한곳에 머물지 않도록, 마음을 해방하고 마음에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3-1-3. 다쿠안의 ‘먹방심(覓放心)’

그런데 다쿠안은 「맹자(孟子)」 「고자장구상(告子章句上)」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먹방심(覓放心)이라고 하는 것은 맹자의 말이다. 자기에게서 멀어진 마음을 찾아서 자기 자신에게 돌려보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개, 고양이, 닭들도 남의 집에 가면 찾아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몸의 주인인 마음이 나쁜 길로 가면 어떻게든 찾아서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는가라는 것이다.\*12

그렇지만 다쿠안이 인용한 「맹자(孟子)」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孟子曰 仁은 人心也요 義는 人路也니라 舍其路而弗由하며 放其心而不知求하나니 哀哉라 人이 有雞犬이 則知求之하되 有放心而不知求니라 學文之道는 無他라 求其放心而已矣니라.  
\*13

이 글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즉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요 의(義)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가지 않으며, 그 마음을 보고 구할 줄 알면서도 마음을 잃어버리면 구할 줄 모른다. 학문의 길

은 다른 것이 없다. 그 잃어버린 마음을 구할 따름이다.\*14

맹자는 학문의 길은 바로 잃어버린 ‘본심(인, 의)’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방심은 사람의 본심인 인과 의를 버린 것을 의미하여,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정착시키고 잃어버렸을 때에는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학문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다쿠안이 생각한 ‘덕방심(覓放心)’은 마음을 신체의 주인으로 칭하여, 그 주인인 마음이(몸으로부터) 멀어지면 찾아서 자기 몸에 되돌리는 것, 나쁜 길로 도망가는 마음을 되찾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마음은 몸의 주인이다”라고 단언하는 다쿠안의 생각은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맹자의 경우에는 주체적인 자기가 인, 의를 망각하는 것을 ‘방심’이라 하며, 망각한 것을 깨닫고 본래 있어야 할 마음을 재인식하는 것을 ‘구기방심(求其放心)’이라고 하는 것에 반해, 다쿠안의 경우에는 마음에는 방향성이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원심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심’, 주체적인 자기가 구심적으로 직용하는 것을 ‘덕방심’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다쿠안의 ‘덕방심’은 맹자의 ‘구기방심(求其放心)’의 원뜻과는 다르게 다른 해석을 부여하여 「부동지신묘록」에 인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 1 - 4. ‘심요방(心要放)’과 ‘구기방심(求其放心)’의 차이

다쿠안은 소강절(邵康節)의 ‘심요방(心要放)’과 맹자의 ‘구기방심(求其放心)’을 소개한 후, 이 둘의 차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훈련할 때는 맹자가 말한 ‘구기방심(求其放心)’의 마음가짐이 좋다. 지극할 때에는 소강절(邵康節)의 ‘심요방(心要放)’이 좋다. (그런데) 중봉스님(中峰和尚)의 이야기 속에 ‘구방심(具放心)’이라는 것이 있다. 이 뜻은 소강절(邵康節)이 말하는 마음의 해방이 필요하다는 과 같은 것으로, 마음은 한곳에 두지 마라는 의미이다.\*15

소강절(邵康節)의 ‘심요방(心要放)’과 중봉스님(中峰和尚)의 ‘구방심(具放心)’은 같은 의미라고 한다. 이 구방심(具放心)을 무네노리가 인용하여 「병법가전서」에서 구방심심(具放心心)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다쿠안의 생각은 ‘구방심’과 ‘심요방’에는 우열관계가 있어, 훈련의 단계에서는 “방심을 추구하는” 경지, 그리고 거기서 한층 더 수련을 되풀이하여 일단 높은 단계에 달하면 소강절(邵康節)의 ‘심요방’의 경지에 이른다고 인식한다. 즉 훈련을 할 때와 지극한 마음일 때의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것이다.

### 3 - 2. 무네노리의 ‘구방심심(具放心心)’의 초중(初重)

이제 무네노리의 ‘구방심심(具放心心)’에 관해서 검토해보기로 하자. 무네노리는 다쿠안의 ‘구방심(具放心)’을 인용하여 ‘구방심심(具放心心)’에는 두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한다.

마음을 놓아주면 간 곳에 머무르는데, 마음이 머무르지 않도록 원래의 곳으로 반드시 되돌리라고 가르치는 것은 초중(初重; 초보 단계)의 수행이다. 태도(太刀)로 한번 그친 곳에 마음이 머무르지 않도록 자기 몸으로 되돌리라고 가르치는 것이다.(22면)

마음을 개방하면 마음이 간 곳에 머무르는 까닭에, 그곳에 마음이 머무르지 않도록 원래 있었던 곳으로 되돌리라고 가르치는 것은 초보자에 대한 것이다. 한번 치고 이 친 곳에 마음이 머무르지 않도록 자기 몸에 되돌리라고 한다. 그런데 이 “태도로 치고 이 친 곳에 마음이 머무르지 않도록 자기 몸으로 되돌리라”고 하는 가르침은 병법의 경우 어떻게 해석되는가.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자.

첫 번째, 「살인도 상권(殺人刀 上卷)」에 있는 ‘치려면 치게 하여 승리하는 마음가짐’이다. 이것은 한번 친 후에 이어지는 다음 기술의 중요성을 설명한 가르침이다.

태도를 한번 친 후에는 상대가 즉시 반응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 후에 다른 생각을 하면, 두 번째 칠 때는 상대에게 반드시 당한다. 친 후에 방심하면 지는 것이다. 친 곳에 마음이 머무르기 때문에 상대에게 당하고, 먼저 이쪽에서 친 태도가 무의미해진다. 상대를 칠 수 있든 없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이중, 삼중, 그 위에 사중, 오중으로 처야 한다. 상대가 얼굴도 들지 못하게 연속적으로 치는 것. 승리는 처음의 한 점으로 결정된다.(14-15면)

기술적으로 보자면 한번 친 후에 계속해서 치는 것을 ‘연속공격’, 혹은 야규신카게류(柳生新陰流)가 말하는 ‘삼중오중(三重五重)’의 가르침이 이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번 친 후에 한 박자 쉬면 “다음의 태도(이쪽이 친 후에 상대가 치는 태도)는 상대에게 반드시 지게 된다. 마음을 놓으면 지는 것이다.”(14-15면) 고 단언하는 것이다. 친 후에 거기에 마음을 놓으면, 상대에게 다음의 공격을 주는 빌미를 제공하고 만다. 그러므로 상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놓는 것’은 어떤 것일까. 무네노리는 “친 곳에 마음이 머무르기 때문에 상대에게 당하고, (자기가 친)처음의 공격이 무효가 된다”고 하듯이, 친 곳에 마음이 머물러 빈틈이 생기고 상대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어, 이쪽이 친 처음의 공격도 허사가 된다고 한다. “친 곳에 칠 수 있든 없든 마음을 놓지 말라”(14-15면) 고 하여, 태도의 결과 여하에 상관없이 단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만을 명심한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치는 공격에 마음을 두는 것이 ‘방심(放心)’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활인검 하권(活人劍 下卷)」에 있는 ‘마음을 되찾는 것’(32-33면)에서 볼 수 있다. 상대는 공격당한 것으로 더욱 기를 내기 때문에, 친 후에 안심하지 않고 지체 없이 이중 삼중으로 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이 가르침은 병법자의 심리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인용부분이 길어 지므로 대강만을 요약해 보자면, 전반부분은 “친 후에 마음을 되찾아 상대의 기색(氣色)을 살핀다”는 것, 후반부분은 “지체 없이 이중 삼중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한다.

### 3-2-1. 전반부분 -친 후에 상대의 기색을 살피는 것-

① ‘마음을 되찾는 것’의 뜻은 한번 치고 나서 쫓다는 생각이 든 순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다. 그대로 다음 동작에 들어가면 (마음이 자기 몸에 되돌아오지 않은 상태인데) 상대에게 다음 공격을 빼앗겨, 이쪽이 친 처음의 공격도 허사가 되어버린다.

② ‘마음을 되찾는 것’은 한번 치면 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치면 바로 마음을 되찾아, 여느 때의 마음으로 되돌아가 상대의 기색을 보는 것이다. 상대도 당하면 분하고 화가 나서 기도 달라진다. 그 때 이쪽이 방심하면 상대에게 공격당하게 된다.

③ 공격당한 상대는 당한 것으로 더욱 기를 내고는 조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를 쳤다는 생각이 생겨나 거기에서 방심도 생기며, 이쪽이 같은 기분으로 다시 내려치면 이번에는 상대가 조심하기 때문에 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쪽이 공격을 실패하면 상대는 그 순간에 치고 들어온다.

### 3-2-2. 후반부분 -연속으로 내려치는 것-

① 상대에 대해 오로지 내려치는 것. 마음을 자기에게 되돌리지 않고, 상대에게 이중 삼중으로 다 그쳐 내려치고 얼굴조차 들 여유를 주지 않는다. ‘머리털 같은 틈도 주지 않는 것(間不容髮)’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처음 공격과 다음 공격 사이에 머리털 하나 끼어들 빈틈(시간)도 없을 정도로 연속하여 내려치는 것을 뜻한다. 공격당한 상대의 마음(분함이나 화)이 더욱 강한 기를 유발하여, 이전보다도 더욱 심하게 공격해 온다.

② 그 때 이쪽에게 방심, 즉 마음의 빈틈이 생기면 다음의 공격(두 번째 태도)은 상대에게 선수를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

이상과 같이 자기 자신이 친 태도에 마음을 두는 것이 방심이고, 방심이 생기지 않도록 이중 삼중으로 내려치는 것, 그것이 ‘자기 몸으로 마음을 되돌리는 것’의 실천임을 알 수 있다. 즉 마음을 해방시켜도 마음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구방심심(具放心心)’의 초중단계의 핵심이 된다.

### 3-2-3. ‘구방심심(具放心心)’의 후중(後重)단계

후중(숙달단계)에 대하여 무네노리는 중봉스님(中峯和尚)이 말한 ‘구방심심(具放心心)’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음을 풀어놓고, (마음이)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한다. 풀어놓지만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해방시킨다. 구방심심(具放心心)이라는 마음을 해방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마음을 끈으로 항상 매고 있으면 (마음은)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해방시켜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는 마음을 방심심(放心心)이라 한다. 이 방심심(放心心)을 갖추면 항상 자유롭게 있을 수 있다. 끈에 매여져 있어서는 (마음은)자유롭지 못하다.(22-23면)

이 문장은 초보단계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을 극복한 후의 경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숙달의 상위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무네노리가 말하는 ‘구방심심(具放心心)’은 ‘마음을 되돌리는’ 마음이 집을 부자유스러운 것이라고 부정하여, 해방시켜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라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서 초보단계의 경우에는 마음이 공격한 곳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도록 다시 자기 몸으로 되돌릴 것을 주장하였지만, 이것은 바로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구속하여 주체적인 자기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박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을 해방시켜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는 경지를 후중(後重; 숙달단계)라고 하는 것이다.

### 3-3. 다쿠안과 무네노리의 마음에 대한 인식차이

다쿠안은 「부동지신묘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잘 갈고 닦여진 수정 구슬은 진흙 속에 있더라도 더러워지지 않는다. 자기 마음도 그렇게 하여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라. 마음을 잡아두고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 \*16

다쿠안은 마음이 간 곳에 집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구속을 해제하여 마음을 해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는 마음을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주체적인 자기의 존재가 확인된다. 이 주체적인 자기가 자기 마음의 구속을 해방시키고, 속박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다쿠안의 마음이 된다.

한편, 무네노리는 마음에 끈을 매고 있으면 (마음은)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끈을 풀어주고 해방시켜 가는 곳곳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 ‘방심심(放心心)’, 즉 마음을 놓아버리는 마음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무네노리가 말하는 주체적인 마음은 수정 구슬이나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다쿠안의 ‘마음’은 아직도 주체적인 자기가 중심이 되어 무네노리가 말하는 ‘초중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무네노리의 마음의 ‘후중단계’ 즉 ‘구방심심(具放心心)’의 경지에서는 마음은 주체적인 자기에서 떨어져 바로 그 자체가 하나의 주체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병법가전서」에서 전개하는 ‘마음’은 다쿠안의 「부동지신묘록」에서 전개하는 ‘마음’보다 상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4. 마지막

무네노리는 「살인도 상권(殺人刀 上卷)」의 결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음을 잘 다루는 사람은 비록 신구의(身口意)의 삼업(三業)을 깨끗하게 하지 않더라도 흙먼지 속에서도 더러워지지 않는다. 종일 움직여도 (마음은)움직이지 않고, (파도가) 천파만파(千波滿波)로 밀려오더라도 파도에 비치는 달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것이 불법으로 도달한 사람의 경지이다. 마음의 스승의 지도를 받아 여기에 적는다. (23면)

마음을 잘 수양한 사람은 어떤 일에 있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무네노리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주장이다. 이제 다시 한번 「살인도 상권(殺人刀 上卷)」을 되돌아 보자면, ‘살인도(殺人刀)’로 명명하면서도 칼 쓰는 기법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고, 오로지 칼을 조작하는 자기의 마음이 집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칼을 번쩍 쳐드는 진짜 승부의 실제체험이 없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생사를 건 승부에서는 칼 조작법보다도 그 근본이 되는 자기 마음가짐의 방법이 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수많은 싸움 속에서 터득된 무네노리의 병법론에는 공상관념의 세계를 초월한 현실의 절실한 호소가 깃들여 있다. 마음의 스승인 다쿠안의 사상적 영향을 많이 받은 무네노리였지만, 스승의 생각

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보다는 취급하기 어려운 ‘마음’의 문제에 대해 검술 실천자의 입장에서 깊이 고찰하여 독자적인 병법론을 전개하고 심화,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병법가전서」의 「살인도 상권(殺人刀 上卷)」이 전하는 병법의 진수라 할 것이다.

## 주

- \*1 도를 닦는 사람.
- \*2 加藤純一「兵法家傳書に學ぶ」, 日本武道館, 2003년, 資料編22면.
- \*3 李民樹역해「莊子(外篇)」, 惠園出版社, 2002년, 315면.
- \*4 市川白弦「日本の禪語錄13 澤庵」, 講談社出版研究所, 1979년, 52면 참고.
- \*5 동상, 107면.
- \*6 동상, 99면과 324-325면. 예를 들어 “무극(無極)은 이(理), 태극(太極)은 기(氣) 이다”라고 단언하는 반면, “유도(儒道)에는 만물일기(萬物一氣)의 변화가 있다. 천(天)이 만들어 낸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중략) 단지 매실은 매실의 인업(引業)으로 매실이 되고 복숭아는 복숭아의 인업으로 복숭아가 된다.”고 말하는 부분에 의한다.
- \*7 전게서\*4, 225면.
- \*8 「論語」의 “子曰,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에 대해서 주주(朱注)에는 “敬者、主一無適之謂”고 있다(「四書集注」臺灣中華書局).
- \*9 전게서\*4, 225-226면.
- \*10 동상.
- \*11 전게서\*4, 229-231면.
- \*12 佐藤鍊太郎「澤庵宗彭「不動智神妙錄」古寫本三種, 「太阿記」古寫本一種」北海道大學研究科紀要103, 2001년, 47면.
- \*13 李家源 監修「孟子」, 흥신문화사, 1999, 399면.
- \*14 동상.
- \*15 전게서\*12, 49면.
- \*16 전게서\*4, 230면.